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8년 10월 19일(금)  
..(음력 9월 11일)..

Пятница  
19 октября 2018 г.  
№ 41(116808)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0월 15일(월) 사할린국립대학교 인문·역사·동양학대학에서 한국어 교사들을 위한 연수가 시작되었다.  
왼쪽: 강연을 한 경희대학교 박동호 교수. (관련기사 2면) (이예식 기자 촬영)

## 단신

### 사할린, 케르치 테러 사망자 애도와 추념

지난 17일(수) 케르치시(크림 반도)의 폴리테크닉전문학교 구내식당에서 금속 파편들로 채워진 폭발물이 터져 18일 오전에 사망자 19명, 부상자 40명으로 밝혀졌다. 중상자도 있어 인명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 테러의 용의자인 본 대학 4학년생인 블라지슬라브 로슬라코브(18세)는 폭발 후 복도로 나와 소총으로 사람들을 향해 난사했다. 이후 용의자는 도서관 2층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 동기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러시아 각 지역에서는 희생자들을 추념하는 행사들이 펼쳐졌다. 사할린 여러 지역에서도 추념행사가 이뤄졌으며 주내 러시아정교회 모든 성당들에서도 추념예배를 진행했다.

### 〈사할린의 품질〉 주 콩클 개최

이번 주에 〈사할린의 품질〉 사할린지역 생산업체들의 제품콩쿠르가 시작되었다. 이미 10여년간 해마다 실시되는 이 콩쿠르에서는 전문가들의 심사로 최고의 연송어 알 통조림, 훈제 연어, 태평양 청어, 고등어와 대구 간 통조림을 비롯해 우유제품, 아디게야 치즈와 버터도 검사할 예정이다. 육류훈제품 중에서는 <크라콥스카야>소시지와 <차이나야>소시지, 빵제품 중에서는 매점에서 판매되는 바톤, <우크라인스키>호밀빵과 <독토르스키>빵을 직접 검사한다. 콩쿠르는 지역생산자들의 생산제품이 참가하게 되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진행된다. 심사위원회는 전문가, 농업관리부서 관계자, 사회단체 등 대표자들로 구성돼 있다. 콩쿠르의 결과는 11월 3일에 발표된다.

### 유즈노사할린스크, 인구통계정책 문제 논의

지난 17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인구통계정책에 대한 실무그룹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주민 독감예방 접종에 대한 예비결과가 발표되었고 노위알렉산드롭스키에 이동 집중의료실이 개설될 예정이라고 밝혀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의료진단센터에서는 조기암진단센터 및 심장센터와 고령층을 돌보는 노인의료서비스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외에 알코올중독 치료문제 등도 논의되었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 〈살아있는 샘〉축제 개최

지난 주말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6차 <살아있는 샘>국제민요축제·콩쿠르가 진행되었다. 대상은 <내 검은 눈썹>이란 노래를 부른 17세의 엘리자베타 구키나(연해주)가 따냈다. 그의 공연은 관객들과 심사위원을 감동시켰다. 축제에는 사할린 민속악단과 솔리스트외에 러시아 극동, 중국, 한국에서도 참여했다. 수상자들의 갈라공연은 14일(일) <옥차브리>영화관에서 펼쳐졌는데 공연장은 만석이었고 수준 높아진 공연은 훌륭했다. 축제의 일환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러시아에서 민속노래문화 유지발전: 원천으로의 길>전국과학실험컨퍼런스도 개최되었다. 또한 예술학교 교사들이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 활동교실도 이뤄졌다.

## 사할린주, 일련의 사회적 주요 식품 가격은 극동지역에서 가장 낮다

10월 초에 극동연방구의 지역 중 사할린주에서 오이와 물고기를 가장 싸게 구매할 수 있었다. 사할린과 쿠릴 섬들에서 냉동생선 평균 소매가격은 95루블리였고 프리모리에지역에는 121루블리, 캄차트카주에는 170루블리, 사하공화국(야쿠치아)에는 234루블리였다.

사할린주에서 오이 평균가격은 87루블리인데 캄차트카주에서는 251루블리, 마가단주는 344루블리, 추코트카자치구는 496루블리이다.

최저가격 순위로 볼 때 냉장 및 냉동 닭고기, 우유 가격은 사할린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금류는 사할린에서 177루블리로 구입할 수 있는데 극동의 다수 지역의 가금류 가격은 200루블리 정도다.

1 리터의 저온살균 우유의 평균가격은 65루블리인데 마가단에서는 120루블리 정도에 판매하고 있다.

사할린의 채소와 곡물 가격은 쌀 73루블리, 비트(사탕무)는 45루블리, 양배추는 31루블리, 프리모리에(연해주) 지역에서는 쌀이 80루블리 이상, 야쿠치아에서 양배추 가격은 51루블리, 비트 가격은 75루블리다.

사할린의 물가가 극동지역에서 가장 낮은 물가 5순위에 든 가운데 관련 식품들은 냉장 및 냉동 손질된 연송어, 달걀, 호밀빵, 메밀, 양파, 당근과 감자의 가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나 파블렌코 사할린주 상공부장관에 따르면 지역의 무역과 농축산업발전에 따른 국가프로그램이 사할린의 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지역 농축산업에 재정적 지원으로 다른 지역으로부터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비롯한 달걀과 채소의 수입량이 줄었다고 했다.

"<저렴한 생선>과 <지역 제품> 기획들은 사할린의 생산제품과 대량의 냉동생선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도록 했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에게도 잘 알려진 직거래시장에서는 생산가로 제품을 살 수 있다."고 파블렌코 장관이 강조했다.

현재 사할린주의 모든 지방자치체들에서는 시장가격보다 평균 20%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사회적 상점 117개가 영업을 하고 있다. 주 사회복지부는 2017년부터 이런 상점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종합식품들을 제공하고 있다.

(사할린주정부 홍보실 자료)

## 사할린주에서 석유, 가스 및 석탄을 더 많이 채취

9개월간 사할린주의 사회경제개발 결산이 이뤄졌다.

평가에 따르면 지역 총 생산액은 8033억 루블리(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102%), 공업 생산액은 7624억 루블리(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103.1%)에 달했다.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주내에서 가스추출량을 포함해 석유 채취량이 3.1%(1400만 톤), 가스 채취량은 8.8%(237억m<sup>3</sup>), 석탄 채취량은 1.5배(820만 톤)로 증가되었다.

주내에서는 전기, 수증기, 온수, 액화천연가스, 목재, 구조물과 철콘크리트 조립식 구조물, 생선통조림, 우유 및 유제품, 치즈, 발효유제품, 버터, 육류, 육류 부산물과 반제품, 플바사(소시지)제품, 제빵류, 맥주, 미네랄 워터 등의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증가되었다.

농산물 생산량은 65억 루블리에 달했는데 이것은 2017년 같은 시기에 비해 14.9% 더 증가했고 육류(1.8배)와 달걀(1.3배)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우유 생산량은 8.4%, 소 마릿수는 9.2%, 돼지 마릿수는 8%, 가금류는 1.4% 증가했다. 젓소 마리당 평균 우유 생산량은 8.5% 증가했다.

연초부터 8개월간 주내에서는 주택 14만 8600만m<sup>2</sup>가 운용되었다.

결산기간에 소매시장에서 판매량은 3.8%, 유료서비스는 1.7%로 증가가 유지되고 있다.

2018년 8월 말 기록된 실업률은 0.5%에 달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0.1% 낮다고 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 새고려신문

## 2019년 신문주문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상반기 구독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92루블리 84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 경기 천년 기념 특별전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산을 넘어》 개최 사할린동포 2세인 주명수·조성용 화가 특별전에 참여

한국 경기도미술관(안산시)은 지난 9월 20일에 특별기획전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산을 넘어>를 열었다. 이번 전시는 '경기(京畿)'라는 이름이 정해진 지 1천년이 된 것을 기념하여,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미술관이 주최/주관하는 전시 중 하나이다. 이번 특별전에는 중국·일본·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아시아 지역 5개국에 거주하는 재외한인 동포 작가 25인이 참여한다.

공식개막식과 <아시아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미술> 주제의 키퍼런스는 지난 10월 5일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에는 특별전 참가작가가 초대되어 참여했다. 러시아는 사할린동포 2세인 주명수·조성용 화가들이 대표했다. 전시 연계 국제학술포럼에서는 윤인진 고려대 교수가 <유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현황>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윤범모 동국대 석좌교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재일 화가>, 김복기 경기대 교수는 <중국 조선족 미술의 정체성>, 김 엘리자베타 카자흐스탄 미술사가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미술사>, 최 빅토리아 우즈베키스탄 미술사가는 <우즈베

키스탄 고려인 화가들>, 사할린전문예술학교 조성용 교수는 <간략한 사할린 한인 미술사>란 주제로 발표하였다.

조성용 화백에 따르면 이번 전시를 통해 다른 지역의 창작스타일을 알 수 있었고 기획과 문제점도 공유할 수 있었다고 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Korean Diaspora)'는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국을 떠나 세계 여러 지역으로 이주하여 살아가는 한민족 '이산(離散)'을 의미한다. 19세기 중엽부터 만주와 연해주로 떠나면서 시작한 코리안 디아스포라, 즉 재외한인의 이산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사회는 오늘날 743만 명 규모로 성장하였다. 한민족은 조선 말기에는 하와이와 멕시코에 사탕수수 노동자로, 일제 강점기에는 만주와 일본 등지에서 농민·노동자. 징용군으로, 1960년대 이후 근대화 시기에는 중남미·북미·유럽·호주 등지에서 노동자·이민자. 유학생으로 퍼져나갔다. 오늘날



이들과 그 후손은 초기 정착의 역경을 극복하고 현지 사회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오고 있다.

전시는 '제1부: 기억(記憶)\_이산의 역사, 제2부: 근원(根源)\_뿌리와 정체성, 제3부: 정착(定着)\_또 하나의 고향, 제4부: 연결(連結)\_이산과 분단을 넘어' 등 네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이산의 역사를 기억하고,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는 작품, 그리고 또 다른 고향에 적응하고 정착하며 그린 그림들, 거주 국가를 달라도 조국의 분단을 아파하고 통일을 바라는 작품들을 통해 하나로 연결된 한민족의 정서를 공감하게 되었다고 주최측이 전했다.

특별전은 11월 25일까지 펼쳐진다.

(본사 기자)  
(사진: 조성용 제공)

## 한국어 교사를 위한 연수 개최

보도된 바와 같이 10월 15일(월) 사할린국립대학교 인문·역사·동양학대학(학장 임 엘비라)에서 사할린국립대와 사할린한국교육원(원장 김주환)의 주최로 한국어 교사들을 위한 연수가 시작되었다.



이번에 우글레고르스크, 돌린스크, 홈스크, 아니와, 코르사코브, 유즈노사할린스크 등지에서 온 한국어 교사와 강사는 약 20명이 되었다. 이에 기뻐한 사할린한국어교원협회 회장 인코르네예와 인나 사할린국립대 한국어 교수는 "앞으로 사할린에서 한국어교육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고 표명했다. 사실 이번 연수에 처음 참가한 분들이 있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세존한글학교 강사, 한인문화센터 소속 강사, <에트노스>예술학교 교사, 아니와 청소년창작센터 강사, 우글레고르스크한글학교 강사, 돌린스크 한글학교 강사 등이다.

새로운 인재들이 전통적인 연수에 참여하는 물론 기쁜 일이다. "이번 연수에는 교사와 강사 외에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 학생 22명, 현재 사할린에 과건되어 실습을 하는 예비 한국어교원 7명 등도 참가해 총 50여 명이 이번 연수를 받게 되었다."고 코르네예와 교수가 밝혔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다양했다. 수강생들은 경희대학교 박동호 교수의 <한국어 유사 문법 항목 교수>란 강연도 듣고 사할린국립대 임 엘비라 교수와 한국 예비교원들의 창작 수업에도 참여하고, 직접 전통 공예품도 만들어보며 한국어 교육의 상호작용법도 배우고 사할린국립대 에프.포월코위츠 강사의 <여행코스를 통한 사할린한인사> 특강도 들었다.

19일(금) 연수생들은 수료증을 받고 20일(토)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펼쳐질 문화체험박람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배순신 기자)

## 이모저모

### <추억의 멜로디> 축제에 사할린 복고풍 음악 애호가들을 초대한다

제4회 <추억의 멜로디> 복고풍 음악축제·경연대회가 10월 27-28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다. 행사는 문화·고문서보관부가 주최하며 주 민속예술창작 센터가 주관한다. 축제에는 솔리스트, 가수, 악단, 보컬 및 합주 앙상블들이 아래와 같이 3 부류로 나뉘어 축제에 참가하게 된다.

애호가

전문 음악가

16세 이상의 중·고등 교육기관 학생

예선으로 통신 선발을 위한 출연자들의 신청서가 우글레고르스크·알렉산드로브스크-사할린스크·돌린스크·노글리키·오하·홈스크·포로나이스크·코르사코브·아니와·스미르노호·피몌스크 구역과 유즈노사할린스크시로부터 축제조직위원회에 접수되었다.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참가자들의 녹음을 심사한 후에 참가자들에게 1980년 이전에 작곡된 다음과 같은 장르 - 재즈, 팝뮤직, 로큰롤, 샹송, 음유시인의 노래 - 에서 축제경연에 참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들간의 축제는 <로지나> 시립문화회관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행사 일정은 아래와 같다.

10월 27일, 13:00 - 콘서트·경연대회

10월 28일, 13:00 - 시상식 및 우승자와 관객들이 함께하는 갈라콘서트

무료 초대권은 문화회관 매표소에서 받을 수 있다고 주 민속예술창작센터 측이 전했다.

### Сахалинских любителей ретромузыки приглашают на фестиваль "Незабытые мелодии"

27-28 октя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ится IV областной фестиваль-конкурс ретромузыки "Незабытые мелодии".

Учредителем мероприятия является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организатором —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В фестивал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солисты, вокалисты, исполнители-инструменталисты, вокальные, вокально-инструментальные и инструментальные ансамбли об-

ласти трех категорий:

любите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музыканты;

учащиеся средних и высш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области в возрасте от 16 лет.

В оргкомитет фестиваля для заочного отбора исполнителей поступили заявки из Углерогского,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Долинского, Ногликского, Охинского, Холмского, Поронийского, Корсаковского, Анивского,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ов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 итогам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прослушивания аудиозаписок жюри допустит к конкурсному концерту участников с песнями, созданными не позднее 1980-го года в следующих направлениях: джаз, эстрада, рок-н-ролл, шансон, бардовская песня.

Оба фестивальных дня пройдут в ГДК "Родина".

Расписание мероприятия:

27 октября, 13:00 — конкурсный концерт;

28 октября, 13:00 — подведение итогов и гала-концерт с участием побед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фестиваля.

Бесплатные пригласительные билеты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в кассе дома культуры, сообщает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 자연에 대한 사진과 미술 경연대회에 초대

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이하여 <향토의 자연> 전국 아동미술대회와 <러시아 생태환경지> 사진 콩쿠르 참가에 사할린 주민들을 초대한다. 작품은 11월 15일 까지 접수된다고 주 동물원 측이 전했다.

일반학교, 기숙학교, 고아원, 아동미술 및 예술학교 학생들은 미술경연대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겨루어 볼 수 있다. 주최 측은 <향토의 자연>콩쿠르 우승자 시상식과 우수작품 전시를 2018년 12월에 진행할 계획이다. 미술대회는 연령별 세 그룹 - 7세~9세, 10세~14세, 15세~18세 - 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작품 활동 시 참가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인 도화지, 아트지, 캔버스로 기술과 장르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러시아 생태환경지> 사진 콩쿠르의 우승자 발표도 12월에 있을 예정이다. 사진 콩쿠르의 참가 연령은 7세부터 99세까지로 작품의 주제들은 향토보호구역, 좋아하는 비경지, 희귀·보호식물과 동물, 천연기념물, 환경보호와 자원봉사 행사 등이 있다.

대회 주최는 <협력> 지역사회단체와 에코 2018.pf 포털 사이트가 한다.

+7 (985) 198-78-38(시고르스카야 울리야 알

렉산드로브나) 전화로 추가정보 문의.

###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иглашают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конкурсе рисунков и фотографий о природе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глашают к участию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дет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Природа родного края» и конкурсе фотографий «Экологические места России», приуроченные к Году добровольца (волонтер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5 ноябр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областном зоопарке.

Свои силы в творческом состязании могут попробовать учащиеся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школ, воспитанники школ-интернатов, детских домов,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и детских школ искусств.

Награжд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Природа родного края», а также выставку лучших работ,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оведут в декабре 2018 года.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в тре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ах: 7-9, 10-14 и 15-18 лет. От участников ждут рисунки, которые могут быть выполнены на любом материале - картон, ватман, холст. Техника и жанр также на усмотрение авторов.

Имена победителей фотоконкурса «Экологические места России» также станут известны в декабре. Участие в нем могут принять все желающие от семи до 99 лет. Тематика работ - заповедные уголки родного края, любимые природные места, охраняемые и редкие растения, животные, природные памятники, экологические и волонтер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конкурса выступают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одействие» и интернет-портал эко2018.pf.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можно узнать по телефону +7 (985) 198-78-38 (Сигорская Юлия Александровна).

### 2018년 사할린 주민 2000 명 이상이 야생진드기에 물려 시달리다

2018년 9개월간 사할린주에 주민 총2333명이 야생진드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이중 562건은 17세 이하의 아동들이었으며 올해 야생진드기 감염률은 작년에 비해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소비자권익보호복지감독원 지역관리소 측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올해 4명의 내원 환자에서 야생진드기 감염이 확인되었고 그중에 한 명은 17세의 청소년이었다. 야생진드기 매개 감염은 2017년과 같은 수준으로 노글리키·코르사코브·유즈노사할린스크 등 세 지역에서 기록되었다.

(8면에 계속)

### 주미술박물관: 전통 러시아 인형 마트료쉬키와 일본 인형 코케시 전시

지난 17일(수) 사할린 주미술박물관에서 <마트료쉬키 및 코케시>인형전시회가 열렸다.

전시에는 러시아 나무인형 마트료쉬키 95개와 일본 나무인형 코케시 68개가 출품되었다. 마트료쉬키는 주로 사할린주미술박물관 소장품이고 코케시는 이름난 사할린 화가 나탈리아 키류키나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작품이다.

이날 동료의 기획전시의 개최를 조성용 러시아연방화가동맹 회원이 축하하고 격려해주었다.

나탈리아 키류키나 화백은 첫 코케시를 30년 전에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 그 후로 코케시 수집품이 많이 늘어났다. 키류키나 화백이 직접 구입한 것도 있고 선물로 받은 적도 있어 친구들이 일본이 아닌 외국에서 찾은 것도 있다고 했다. 그의 코케시에는 각각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곰 박물관>의 설립자인 키류키나 화가는 마트료쉬키는 러시아의 마음을, 코케시는 일본의 마음 일부라고 생각한다. 일본 예술을 잘 아는 그는 일본에서 러시아 전통 공예를 소개한 적이 있고 일본 공예를 배운 적이 있다. 러시아 인형과 놀이감 제작법도 가르쳐준 적이 있다.

사할린 화백은 코케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며 코케시 제작법은 여러 개가 있고 일본에서는 11



개의 코케시 학교가 있다고 한다.

"일본은 저에게 항상 수수께끼의 나라이고 인형들도 비밀이 많은 것 같다. 미술품을 만들 때 작가들은 일본인이나 러시아인이나 평화와 미, 우정과 삶에 대해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를 연결시킨다."고 키류키나 작가는 강조했다.

전시에는 나무인형 외에도 러시아 전통의상과 일본 전통 키모노가 소개되고 키류키나 화백의 그림들도 출품되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 사할린 한인, 그들은 누구인가

최경옥(영산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

(전호의 계속)  
V. 해결방안

첫째, 재외동포의 범위로는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운영석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6138, 발의년월일; 2017. 3. 13., 발의자; 운영석, 김도읍, 권석창, 이채익, 정우택, 정갑윤, 여상규, 박맹우, 서정원 의원 10인))

둘째, 위 문제를 포함하여 국내체류 고려인등(중국동포 포함)의 복지와 관련하여 위 개정안보다 진일보한 개정안은 추가로 국내체류 재외동포들의 국내 입국편의 확대, 경제, 사회, 문화 활동 등 국내 활동 지원 등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며(안 제4조 제2항 신설), 모국 정착을 바라는 동포의 적극지원(안 제4조 제3항 신설), 국내체류 미성년 자녀의 무상보육 및 의무교육 지원(안 제4조제4항 신설), 국내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도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안 제5조의 2 제1항 신설)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광주광역시외의 고려인동행위원회는 2018년 1월 15일 고려인국민위원회(서울), 고려인을 넘어 경기도 안산 등 전국 고려인 지원단체 등과 협의해 고려인특별법 개정 청원운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지역 각계 인사 400여명이 참여한 고려인동행위원회는 11일 광주시 월곡동 광주 고려인마을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광주 광산구월곡동 일대엔 고려인 4000여명이 살고 있다. 문제는 고려인 4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외국인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고려인 4세는 만 20살 성인이 되면 한국을 떠나 자신이 태어난 나라로 가 단기관광비자(C3)를 받아 다시 국내로 들어와야 한다. 국내에 계속 머무려면 3개월마다 출국했다가 재입국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만 20살 이상 부모와 함께 국내 거주 중인 고려인 4세에게 201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방문동거비자(F1) 자격을 부여했다. 박용수 고려인동행위원회 위원장은 고려인 특별법 개정 청원운동은 고려인 4~6세도 동포로 인정받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에 발의된 고려인특별법 개정안 청원 운동 펼친다. 한겨레, 2018. 1. 15.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27796.html#csidx21e3817177ca b18a048698bb3d704e6

검색 2018. 4. 1. 참고로 2017년 9월 법무부의 '4세대 이후 동포에 대한 한시적인 구제지침'의 결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고려인 등 4세대 이후 청년들의 국내체류 지원을 위하여 2018년 3월 36일부터 체류자격의 활동허가를 통한 시간제 취업활동을 허용하였다. 허가대상은 만 19세 이상 4세대 이후 청년동포로 한시적 구제조치(F-1-25)를 받았거나, 부 또는 모와 국내거주하는 25세 미만 동포(F-1-11, F-1-9)에만 해당되며, 취업법위는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는 취업분야로, 허가기간은 최대 1년이며, 취업장소는 1곳으로 주당 30시간으로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처벌받고, 당사자는 체류허가 취소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고려인들은 관심은 감사하나, 허용직종의 제한(편의점, 패스푸드 등)으로, 한국어 구사가 힘든 고려인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광주출입국, 고려인마을 주민초청 '체류자격의 활동허가 설명회', 한국타임즈, 2018. 3. 24., 김혜경 기자; 검색 2018. 4. 2. http://www.hktimes.kr/read.php3?aid=1521867355101312003

한편 법무부는 오는 4월 2일부터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부모 등 가족이 결혼이민자의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을 목적으로 장기 체류를 원할 경우 허가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셋째, 그리고 국내체류 재외동포의 경우 취업활동과 관련하여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5조의 2 제2항 신설) (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6627, 발의년월일; 2017. 4. 6., 발의자; 이장우, 유기준, 김명연, 이우현, 박대출, 전희경, 추경호, 염동열, 박상도, 김상훈, 김도읍, 이은권, 의원 12인))이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으나, 이 역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란 부분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현재 불법체류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금 더 진전된 문구로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유로 외국국적동포들이 한국국적으로 회복하려고 하여도 바로 이와 같은 조항에 걸려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넷째, 이와 같은 개정안에도 여전히 '무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도 포함된다'라고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상위법이 아닌 그 시행령 등에서 '단순노무행위'를 한다는 조건만으로 재외동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정책은 이는 직업의 종류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므로, 포괄위임금지에도 반하므로 이 부분이 재외동포법의 핵심이므로 이러한 부분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모법과 하위법의 상관관계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결합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도 아닌 하위법에서 별개의 제한 내지 배척 조항을 만드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여섯째, 이는 그들의 돌아올 권리에 관한 귀중하고도 원천적인 문제이며, 국가 간의 협정문제이므로, 이를 국내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자를 재외동포에 포함시키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에 의한 정책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그들은 본래부터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의 승계자였으므로, 고국으로 돌아올 귀환권이 있다. (관련 논문으로는, 최경옥, 중국동포와 한국국적 취득의 문제점, 일감법학 제29호, 2014. 10.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인, 사할린 동포의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법적지위, 헌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2012. 12.; 동인, 재외동포들의 돌아올 권리에 대한 법적 자취-사할린/중국 등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66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6.) 그러므로 해방 70년이 넘어서는 시점에서 이들을 희망자에 한하여서는 국내의 자유로운 출입이나 국적 취득 내지 회복을 전면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계속)

### 올해 한상대회, 한상 네트워크 활용한 비즈니스 특화 프로그램으로 성과 극대화

축적된 한상 네트워크 활용한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 다변화에 초점 인천시 전략 산업 중심의 기업전시회 구성, '한상's 프렌즈' 사업 신설, 국내 뷰티 기업 해외 진출 위한 'K-뷰티 트레이드 쇼' 등 비즈니스 특화 프로그램 마련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할린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17차 세계한상대회(주최 재외동포재단)의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지역 특성과 글로벌 경제 트렌드에 맞춰 보다 전문적이고 특화돼 진행된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축적된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한상과 한상, 한상과 국내 기업과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더욱 늘릴 예정이다.

<기업전시회>의 경우 지난해(350개)보다 늘어난 490여 개의 부스가 들어서 개최지인 인천 지역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꾸려진다. 제조·물류의 중심 도시인 인천의 특색을 살려 뷰티, 로봇, 바이오 등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기업전시회는 전시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천시 우수기업관, 중소기업 특별관, 아이디어 상품관, 글로벌 식품관, 수출우수기업관, 뷰티/이미지관 등 테마별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 또, 올해는 남북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개성공단 입주 업체가 전시회에 참여하며, 대학에서 특허를 보유한 상품이나 기술을 소개하는 '대학특허제품관'도 새롭게 선보인다.

'한상대회의 꽃'으로 불리는 <일대일비즈니스미팅> 역시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해외 바이어 40여 개사와 국내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 매칭을 통해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되며, 기업전시회 내 상담장을 조성해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 상담 효율을 높여 성과를 최대화 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해외 한상의 파트너인 외국기업인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인 <한상's 프렌즈>가 처음으로 열린다. 대회 참가자를 외국기업까지 확대해 국내기업에 보다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며,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일본, 미국 등 외국 기업인이 참여한다.

<한상 비즈니스 세미나> 역시 글로벌 비즈니스 이슈를 고려해 구성됐다.

(7면에 계속)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20 сентября 2018 г. в музее совреме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г. Ансан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Южная Корея) начала работу выставка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преодолев разделение», в которой представлены работы 25-ти корейских художников-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з России, Китая, Казахстана, Узбекистана и Японии. Официальное открытие выставки состоялось 5 октября, во Всемирный день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На открытие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все участник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оекта. В рамках открытия выставки состоялась также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Искусство в Азии».

Работу конференции приветствовала директор музея Цой Юндю, об истории и текущей ситуаци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рассказал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ре Юн Индин, о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е Японии и корейских художниках-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х докладывал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Донгук Юн Боммо, о художниках-корейцах из Китая –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Кенги Ким Бок Ки. Об истории искусства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рассказала Елизавета Ким, о корейских художниках Узбекистана – Виктория Цой, Краткая история живописи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была представлена членом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Дё Сон Еном.

Куратором данного проекта является Пак Бон Су. С переводом помогал Ким Бен Хак, проживший в Казахстане 20 лет. В Южной Корее знают искусство корейцев в Японии и Китае, но не знают о корейских художниках в СНГ.

Художники из России и стран СНГ остались очень довольны прекрасным выставочным пространством, грамотной экспозицией и теплым приемом со стороны организаторов.

*Представля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выдержки из выступления художника Де Сон Ен.*

**Художники-корейц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И Анатолий Николаевич** (1926-2016), Хасанский район,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Скульптор. Заслуженный художник РСФСР. Член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лся в жанре реалистического камерного портрета. В 1952 приехал на Сахалин по

## О конференции и выставке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Искусство в Азии», открывшейся в Ансане



путевке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Казахстана. Работал в сахалинских художественно-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мастерских (1954–1990). Создал галерею портретов людей, причастных к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а: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А. Буюклы, русского писателя А.П.Чехова (1956), а также портретов современников – заслуженного артиста России В.Новикова и др. Участник городских, областных, краевых, республиканских и всесоюзных выставок.

Анатолия Ни поистине можно назвать самородком, потому как специаль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он не имел. На Сахалин приехал в начале 1950-х годов по путевке ЦК Комсомола. Будущий скульптор был призван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освоении сахалинской целины.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творчества Ни принадлежит музейным фондам двух сахалинских музеев –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К широко известным произведениям периода 1970-х – 1990-х годов относятся «Оленевод», «Нивхская девушка», «Портрет Владимира Санги», «Портрет П.Г. Чайки», «Портрет адмирала Невельского», «Портрет А.П.Чехова», «Портрет заслуженного врача РСФСР Ф.С.Анкудинова», «Портрет заслуженного артиста РСФСР В.Новикова». Скульптуры Анатолия Ни сегодня представлены также в коллекциях Читинск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в Хабаровске, Музея изобразительных искусств Комсомольска-на-Амуре, Мурма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и в фондах сахалинских

музеев –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Необыкновенный мастер. Вот как в скульптуре можно изобразить национальность – у него узнаваемы и корейцы, и нивхи, и русские. Он, видимо, специально выбирал такие лица – добрые, трудолюбивые. Портрет Чехова, выполненный мастером, до сих пор можно увидеть в областном драмтеатре. Еще одна работа, посвященная Антону Павловичу, установлена на площади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Известный островной мастер **Дю Мен Су** родился в 1948 году в Корсакове. В 1976 году окончил отделени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оформления Иркутского училища искусств. Четыре года работал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мастерских города Кемерово. В 1981 году вернулся на Сахалин. В Корсакове работал художником-оформителем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Через 13 лет переехал с семье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где всецело посвятил себя творчеству.

Особой любовью проникся к графике и акварельной технике живописи. Он участник 2-й зональной выставки молодых художников Сибири (1978, Омск), Всесоюзной выставки «Художники – флоту» (1986, Холмск), творческой группы сахалин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1989, Пхеньян, КНДР), «Художники Сахалина» (1989, Саппоро, 1993, Ямагата, 1996, Ниигата, 2001, Саппоро, Япония), 7-й зональной выставки «Совет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1990, Якутск), Всесоюзной выставки акварели «Сахалин-90» (1990, Южно-Сахалинск), нескольких регио-

нальных выставок «Дальний Восток» (1997, 2003, 2008, Хабаровск). Персональные выставки художника с успехом прош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Хабаровске, Москве. Три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в США.

Пожалуй, наиболее трудной для Дю Мен Су стала работа над корейской серией картин. В этот цикл уже входит более 20 работ, но это не предел. Каждое из полотен дает проникновение в какой-то временной период. Он несколько раз бывал на своей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 в Южной Корее. Был 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 в 1989 году в составе творческой группы сахалин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посетил КНДР.

**Дё Сон Ен** родил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1960 году. Окончил декоративное отделение Иркутского училища искусств, а такж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институт искусств живописное отделение (в 1990 году, с красным дипломом). С 1995 года является членом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Дё Сон Ен участник все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альных, областных и городских выставок,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 выставках сахалин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в Японии, Корее, Китае. С 1992 года — преподаватель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Де Сон Ен работает заведующим кафедры «Дизайн»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Его работы находятся в музеях Сахалина, Приморья, в Японии, Китае, а также в частных коллекциях в России, Корее, Китае, США, Латвии.

Дё Сон Ен активно вошел в творческую жизнь Сахалина в 1990-х годах.

Все корейские художники окончили Иркутское училище, так как на тот период они являлись лицами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Есть еще несколько сахалинских художников-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сейчас живут не на Сахалине.

**Тен Нам Гир** окончил ИУИ в 1972 году, работает в направлении ландшафтного дизайна

**Хан Те Вон** окончил ИУИ в 1975 году, сейчас в Москве

**Ким Су Хан** окончил ИУИ в 1975 г., художник-график, исполняет быстрые зарисовки. г. Москва.

**Хан Чен Чин** окончил ИУИ в 1979 году и сейчас работает дизайнером графиком в Иркутске.

**Хе Дон Бек** окончил ИУИ в 1972 году, живёт и работает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дизайнером рекламы уже лет 15.

**Цой Де Ен** стал в Иркутске архитектором, хотя мечтал стать живописцем.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как и любая другая этническая диаспора в России, разнородна. Третье поколение составляет более высокий процент людей с высшим образованием в силу больших возможностей, отсутствовавших у предыдущего поколения. Многи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добились определенных успехов, материального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статуса и уважения в обществе. Сред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есть люди самых разных профессий и образования: бизнесмены, врачи, учителя, строители, военные, рыбаки, музыканты и т.д.

Творческая сторона жизни корей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не богата на события. Отдельно лишь стоит отметить 1-ую выставку корей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в город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которой участвовали Дю Мен Су, Дё Сон Ен и Хе Дон Бек в далёком 1996 году. Художественное развитие сахалин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стоит обособлено от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так как,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остров, который не соседствует ни с одной территорией страны, тем более с другими иностран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и развитие творчества имеет от этого и свои особенности, и отличительные черты.

Если в таких регионах, как Приморском и Хабаровском краях,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идёт развитие совреме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и появляются яркие молодые художники, идёт тес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обогащение опытом с китайскими и корейскими художниками, то на Сахалине всё идёт медленно и однонаправленно.

Может быть в обособлен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есть особое своеобразие, так как художники не поддаются всяким течениям совреме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492 руб. 8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Юг и Север договорились о соединении железных и ав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

15 октября Юг и Север договорились о начале работ по модернизации и соединению железных и ав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 двух Кореи. Работы решено начать в конце ноября-начале декабря. Для этого с третьей декады октября решено начать совместную инспекцию состояния западного участк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магистрали, а с начала ноября -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идущей вдоль побережья Восточного моря.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совместном пресс-релизе, принятом по итогам встречи. По срокам проведения инспекции автодорог вдоль побережья стороны решили в дальнейшем обменяться мнениями в письменном виде.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о проведении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ереговоров воен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 целью обсуждения вопросов о прекращении враждебных действий в при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ах и других актуальных тем. Помимо этого, 22 октября в совместном пункте оперативной связи решено про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по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сфере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Примерно в это же время стороны обсудят совместные меры по борьбе с проникновением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конце месяца в пункте оперативной связи будет проведена встреч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портивных ведомств. Они обменяются мнениями о совместном участии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в том числе летней Олимпиаде 2020 года, мерах для получения права совместно провести летние Игры 2032 года. В ноябре в горах Кымгансан пройдут переговоры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бществ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двух Кореи по проблеме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Кроме того, стороны договорились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решить вопрос о проведении в РК выступлени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артистов. Делегации на переговорах возглавляли министр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Чо Мён и председател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мирн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родины Ли Сон Гвон.

## Мун Чжэ Ин: Ким Чен Ын полон решимости осуществить денуклеаризацию

КНДР не осилит меры давления со стороны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которые последуют в случае нарушения Пхеньяном договорённостей п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Однак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ен Ын полон решимости отказаться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 интервью газете Le Figaro. Он указал, что много общался с Ким Чен Ыном в рамках трёх межкорейских саммитов. Мун Чжэ Ин отметил, что Ким Чен Ын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об отказе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в обмен на гарантии сохранения нынешнего режима. Вместе с тем, глава РК сказал, что объявление об окончании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может стать началом процесса налаживания режима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 В РК завершил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мотр ВМС

14 октября завершился трет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мотр военно-морских сил, который с 10 октября проходил у южного побережья острова Чечжудо.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10 тыс.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из 12 стран, а также делегации из 46 стран. В смотр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9 кораблей из 12 стран, в том числе отряд боевых кораблей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России, а также 40 кораблей и 20 самолётов ВМС РК. 15-16 октября они покинут РК. На этот раз РК и США не стали проводить совместные военно-морские учения, как это было прежде. Между тем,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МС проведут совместные манёвры с военными Канады и Индии.

## В третьем квартале количество безработных в РК резко увеличилось

В третьем квартале этого года среднемесячное количество безработных в РК увеличилось на 102 тыс. человек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составив 1 млн 65 тыс. человек. Как сообщили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татистиче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это самый высокий показатель для третьего квартала с 1999 года, когда страна переживала последствия валютного кризис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казатель в 1 млн безработных превышен впервые за последние 19 лет. Нынешний рост связывают с сокращением численности экономически активного населения, пытающегося найти работу. Уровень занятости в указанный период сократился на 0,3%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составив 61,1%. Это самое большое сокращение показателя с первого квартала 2010 года. (RKI)



## Реформы без открытости

Андрей Ланьков

В декабре 2011 года 27-летний Ким Чен Ын стал руководителе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менив на высш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остах своего внезапно скончавшегося отца Ким Чен Ира. Несмотря на молодость и отсутствие политического опыта, Ким Чен Ын быстро зарекомендовал себя инициативным и энергичным, хотя и жестким руководителем. Оказавшись – скорее всего, неожиданно и для себя самого – на капитанском мостик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рабля, с первых же месяцев правления он стал менять курс этого корабля.

Основой всей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и Ким Чен Ына стали радикаль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реформы, которые во многом копируют те, что проводились в Китае в 1980-е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Дэн Сяопина. Впрочем, по политическим соображениям в Пхеньяне не признают этого копирования: официально считается, что Корея, будучи одной из колыбелей всей человеческой цивилизации (да, именно так!), не нуждается в том, чтобы следовать иностранным образцам, а живет исключительно собственным умом или, скорее, мудростью своих вождей.

Когда Ким Чен Ын, третий правитель из клана Кимов, пришел к власти, страна находилась в крайне тяжелом положени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а момент своего основания в 1948-м была одним из самых развитых промышленных регионо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но в последние десятилетия она все больше отставала от успешных соседей,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т Южной Кореи. На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разрыв в уровне доходов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с Южной Кореей, если верить оптимистам, 15-кратный, а если согласиться с пессимистами, то и вовсе 40-кратный. Командно-административная экономика, некогда скопированная с советского образца, перестала нормально функционировать еще в 1990-е.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в КНДР начался стихийный рост рыночных отношений: рынки становились больше, появились и быстро богатели полулегальные частн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 своего род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цеховики», куда более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и влиятельные, чем их коллеги времен позднего СССР.

Однако, Ким Чен Ир так и не понял, что же ему следует делать в сложившейся ситуации. Идти китайским путем он опасался, полагая, что в разделенной стране, с огромным разрывом в уровне жизни между двумя ее частями, радикальные реформы скорее спровоцируют не экономический бум, как в КНР, а политический кризис, похожий на тот, что случился в Восточной Германии. Поэтому все 17 лет своего правления Ким Чен Ир провел, кидаясь из одной крайности в другую. Временами он выступал в поддержку реформ и покровительствовал тем чиновникам, которые призывали перенять китайский опыт, а временами же, наоборот, произносил речи об опасности рыночных отношений и призывал вернуться к старой централизованной экономике и тотальной карточной системе.

Ким Чен Ын, в отличие от отца, владеет иностранными языками и долгое время учился в Швейцарии, так что о ситуации в мире он прекрасно осведомлен. Похоже,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Молодой Маршал прекрасно понимал: чтобы покончить с накопившимися экономическими проблемами, КНДР должна двинуться по китайско-вьетнамскому пути рыночных реформ. Вскоре после прихода к власти Ким Чен Ына в китайских университетах появились группы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экспертов, которые, стараясь не привлекать к себе лишнего внимания, начали собирать материалы о том, что же происходило в КНР в первые годы правления Дэн Сяопина.

С июня 2012-го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ало

переводиться на семейный подряд (переход завершился к 2016 году).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кооперативы – жесточенный вариант советских колхозов, – в которых размер приусадебного участка был ограничен одной соткой, формально продолжают существовать, но, по сути, превратились в управленческие инстанци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новой системой большая часть пахотной земли передана в долгосрочное пользование «малым хозрасчетным звеньям», состоящим из одной-двух крестьянских семей каждое. Часть урожая – обычно около трети – крестьянам полагается сдавать государству, выплачивая,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воего рода натуральный налог. Остальным они могут распоряжаться по своему усмотрению.

Результаты оказались легко предсказуемыми: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КНДР при Ким Чен Ыне начало быстро улучшаться. Один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чиновник сказал мне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В прошлом наши крестьяне иногда немножко ленились, но при нынешней системе им нет смысла лениться, и они работают очень хорошо». Что ж, работают он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а совес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зерновых выросло на 20–25%,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первые за десятилетия приблизилась к уровню самообеспечения продовольствием.

С конца 2014-го начался перевод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на систему радикального хозрасчета, скопированную с системы «двойных цен», существовавшей в 1980-е в Кита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этой системой предприятия сдают государству определенную часть произвед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и получают за нее символическую плату. Все, что производится сверх этого количества, предприятие волюно продавать своим партнерам и потребителям по свободным ценам.

(Продолжение на стр. 6)

## Профицит отрасли Халлю растёт

Доходность от отрасл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ной волны Халлю растёт на фоне успеха бойз-бэнда «Бантхан сонёндан» (BTS), а также отмены односторонних мер давления со стороны Китая, требовавшего отменить размещение в РК американ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ПРО THAAD, и других факторов. По данным Банка Кореи, представленным 13 октября, в августе профицит платёжного баланса в сфере музыкальных и видео контентов и профильных услуг достиг отметки в 42,7 млн долларов, что является максимальным уровнем с апрел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огда была зафиксирована сумма в 55 млн долларов. Нынешний показатель удалось обеспечить благодаря увеличению доходов отрасли за рубежом, объём которых составил 81,8 млн долларов. Накопленный объём профицита за период с января по август составил 235 млн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14,3 млн бол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KBS WORLD)

## Новый посол России в Сеуле вручил верительные грамоты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Мун Чжэ Ин принял шесть новых послов в своей стране, включая посла России Андрея Кулика.

Мун принял верительные грамоты от шести новых послов на шести отдельных церемониях в своей резиденции.

Вновь назначенными главам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миссий стали также посол Казахстана Бакыт Дюсенбаев, посол Индии Срипроя Ранганатхан, посол Швеции Якоб Халлгрэн, посол Венгрии Мозес Ксома и посол Афганистана Абдул Хаком Атаруд.

На некоторых церемониях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также члены семей новых послов.



(ИА РУСКОР)

### Сотовая связь будет доступна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й автодороги о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 Охи

К 2020 году трассу обеспечат устойчивой мобильной связью благодаря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между региональ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и сотовыми операторам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первый регион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в Сибири, где был применен механизм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в цифровой сфере в рамках соглашений между властью и бизнесом.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сотовая связь доступна практически на всем промежутке дорог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Поронайск.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озвучала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с участием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Сергея Попова и руководства компании «МегаФон».

– Мы живем в регионе с непростыми климатическими условиями, поэтому вопрос доступности сотовой связи особенно актуален. На сахалинских дорогах не должно быть участков вне зоны доступа, чтобы избежать таких ситуаций, когда автомобилисты становятся заложниками снежных метелей или тайфунов и не могут позвонить даже в экстренные службы,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Попов.

Напомним, в сен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на полях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сахали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компания «МегаФон» заключи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по которому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ся разделение затрат на обеспечение автодорог мобильной связью. Один из крупнейших операторов связи присоединился к проекту, в котором с 2017 года участвовали компании МТС и «Вымпелком».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уже обеспечили постройку 14 объектов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вязи и их подключение к электросетям. Бизнес же взял на себя расходы по размещению собственных базовых станций и их последующую эксплуатацию. Теперь на всех 14 объектах будут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все федеральные операторы связи, кроме Tele2.

Компания «МегаФон» также выразила готовность участвовать во второй части этого проекта по обеспечению связью сахалинских дорог. До 2020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роить еще 14 объектов: 12 антенно-мачтовых

сооружений (АМС) на региональной трассе до Охи и 2 объекта – до Охотского.

Кроме того,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обсудили новый форма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властью и бизнесом в вид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который мож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ля покрытия сотовой связью мал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По словам дирек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компании «МегаФон» Елены Просвириной, развити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отдаленных селах требует больших затрат.

– Не так дорого построить объекты связи, но обслуживать их выходит не рентабельно для любого оператора. Зачастую в мал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где проживает меньше ста человек, нет транспортной сети, развитой энергосистемы.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благами цивилизации жителей отдаленн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можно эффектив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механизм разделения затрат между властью и бизнесом, – сказала Елена Просвирина.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более 99 процентов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обеспечены сотовой связью, более 93 процентов – фиксированным Интернетом, когда волоконно-оптическая линия связи проведена в город или село.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по устранению цифрового неравенств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11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дключили к оптоволоконной сети. Более 10 тысяч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получили быстрый доступ в Интернет. А в конце года должна завершиться прокладка оптоволоконка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 В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правляются новые школьные автобусы

Ключи от 14 ПАЗов 12 октября были торжественно вручен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ольше всего – 4 автобуса – получил Холмский район, который направит их в села Чапланово, Яблочное и Правду.

– Сегодня мы получили машины на замену старых автобусов, которые служили больше 10 лет. Современный транспорт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ля подвоза детей к местам учебы из небольш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 отмети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мэра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Валентин Муртазин. – Существуют особые условия для перевозки детей, и мы обязаны их соблюдать. Особенно актуально это в зимнее вре-

мя, полученные машины теплые и безопасные. Модель рассчитана на поездки по бездорожью, оснащена тахографом, а также аппаратурой спутниковой навигации ГЛОНАСС/GPS.

В каждом из поступивших в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ы автобусов – 20 посадочных мест для детей и еще 2 места для взрослых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Пассажирские машины имеют полный привод и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признаны наиболее удачным вариантом для перевозки учащихся.

2 автобуса отправятся на остров Кунашир, они предназначены для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поселка Южно-Курильск и села Дубового. В райцентре это позволит пополнить имеющийся автопарк, а в селе заменить устаревшую модель.

– Автобусы для нас имеют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потому как мы подвозим учащихся из 5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 217 детей, – отметил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образования района Лариса Немешина. – Полученные машины позволят нам доставлять всех школьников к первому уроку за один раз. Сейчас в нашем распоряжении находятся 8 автобусов.

По словам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нтона Зайцева, который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церемонии передачи ключей от пассажирских машин, власти региона вот уж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планомерно обновляют школьный автопарк. Сегодня автобусы перевозят свыше 3 тысяч сахалинских и куриль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по 112 маршрутам.

– Наша главная задача – создать рав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получения качестве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сех детей, независимо от места жительства. Приобретение современных автобусов позволит повыси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перевозок и обеспечит комфорт для школьников. Работа по обновлению автопарка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в бюджете на эти цели предусмотрены средства,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нтон Зайцев.

Закупка новых автобусов проходит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звитие образования на 2014-2020 годы»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стр. 5)

Показательно,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МИ мало пишут о происходящих реформах, по-видимому, опасаясь посеять ненужные сомнения в сердцах населения. В целом для народных масс сохраняется старая риторика – проверенная десятилетиями смесь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и националистической фразеологии. Однако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журналы, адресованные управленцам и чиновникам, ведут себя намного откровеннее. В появившихся на их страницах в последние три-четыре года публикациях весьма подробно объясняют, как должна работать нов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модель. В этих журналах публикуют даже известные любому экономисту графики с кривыми спроса и предложения, иллюстрирующие принципы рыночного ценообразования в новой модели. Появляются там и статьи с изложением основ современной (конечно же, рыноч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теории в применении к нов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модели. Впрочем, такие слова, как «рынок» и «реформа», остаются крамольными и по идеологическим соображениям не используются даже 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изданиях.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санкции, в 2017-м ВВП КНДР вырос на 3,9%. Впрочем, в этом году успех повторить вряд ли удастся из-за наложенных на Пхеньян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Систему двойных цен можно считать варианто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госкапитализма –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работают в условиях рыночной экономики, но не меняют формы собственности. При этом еще в 1990-е в стране сложился заметный частный сектор. Во времена Ким Чен Ира этот сектор то поощряли, то пытались раздавить, а обычно просто закрывали на его существование глаза. Позиция Ким Чен Ына иная: частный сектор делает полезное дело, и его нужно терпеть, а временами и поощрять, хотя и не легализовывать полностью.

Впрочем, даже в официально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е сейчас появились лазейки,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е для цеховиков. В принятом в ноябре 2014 года «Законе о промышл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содер-

жится статья 38,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ая привлеч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средств частных инвесторов, и речь идет не об инвесторах-иностранцах.

Прекратились гонения на те част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которые функционируют в КНДР уже не первое десятилетие, будучи формальн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и в качеств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Подобная фальшивая регистрация – весьм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ая практика. Например, в последние 15–20 лет фактически частными стали почти вс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рестораны, хотя работают они именно под такой регистрацией. Частный сектор играет большую роль в автотранспорте, междугородных пассажирских перевозках, рыбной ловле и, что важно, в жилищн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По ослабления эпохи Ким Чен Ына привели к тому, что цеховики, которых власти терпели и раньше, окончательно вышли из подполья. В этом легко убедиться, побывав в любом из многих дорогих ресторанов, открывшихся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где за обед на двоих надо отдать среднемесячную северокорейскую зарплату.

Ким Чен Ын попытался привлечь и иностранные инвестиции, сыгравшие важную роль в развитии других стран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Правда, в отличие от прочих направлений реформы, здесь удача ему не сопутствовала.

Иностранные инвесторы, во-первых, просто побаиваются иметь дело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находящейся под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санкциями. Во-вторых, многим из них хорошо известен печальный опыт тех иностра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которые в свое время, казалось бы, успешно инвестировали в КНДР.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лучаев, если это предприятие оказывалось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рибыльны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партнеры в одностороннем порядке пересматривали услов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а то и вовсе конфисковывали фирму. В КНДР международную торговлю воспринимают как игру с нулевой суммой

## Реформы без открытости

Андрей Ланьков

и склонны считать, что иностранцы, «чрезмерно» зарабатывающие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грабят страну и посему их действия необходимо немедленно пресечь. Кроме того, у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существует крайне завышен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итягательности их страны.

Так что, скорее всего, на привлече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капиталов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Пхеньяну рассчитывать не приходится. Единственным исключением могут стать инвестиции, за которыми стоят политические интересы, то ест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инвестиции из Китая и Южной Кореи. Впрочем, санк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делают и такие политически мотивированные вложения практически невозможными.

Сегодня, по прошествии семи лет с начала правления Ким Чен Ына, можно с уверенностью сказать: реформа работает. Ситуация в государстве улучшается или,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улучшалась до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огда санкционное давление на КНДР резко усилилось.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по разным оценкам, при Ким Чен Ыне составлял от трех до семи процентов в год. Зарплаты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за это время выросли примерно в два раза. Сейчас зарплата в Пхеньяне составляет \$50–70, а на удачливых частн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и некотор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ВПК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рабочие получают и по \$100 в месяц.

При Ким Чен Ыне была окончательно решена и проблема товарного дефицита: магазины и в столице, и в провинции забиты товарами.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продукция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несмотря на свое, скажем прямо, не очень высокое качество, ощутило потеснила китайский импорт. В Пхеньяне и некоторых других городах стремительно возникают целые кварталы новостроек, в основном возводимых на деньги частных инвесторов. Хорошая квартира в центральном Пхеньяне стоит около \$100 тысяч, а эксклюзивная – в полтора раза больше.

Ускорившийся при Ким Чен Ыне переход к рыночной экономике привел к существенному социальному расслоению, но нельзя сказать, что мы имеем дело с ситуацией, когда «богатые богатеют, а бедные беднеют». Благосостояние, в общем-то, растет у всех, хотя и с разной скоростью.

При этом выбранная Ким Чен Ыном модель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отличается от китайского прототипа одной важной особенностью – в КНР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сопровождался политическими послаблениями и частичным открытием страны для внешнего мира. Недаром китайская политика известна как «политика открытости и реформ».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реформы идут, но никакой «открытости» там не наблюдается: власть по-прежнему жестко контролирует страну, а меры по ее изоляции от внешнего мира даже усилились.

Ким Чен Ын сделал ставку на сочетание рыночных реформ в экономике с сохранением крайне жесткого авторитарного режима в политике. По-видимому, только такой микс дает Ким Чен Ыну шанс сохранить власть и встретить старость в своей резиденции, а не в тюрьме или изгнании. С точки зрения самого Ким Чен Ына и его окружения, у проводимого ими курса «реформ без открытости» просто нет альтернативы: мириться с сохранением отсталости они не могут и не хотят, но и подвергать угрозе стабильность режима тоже не желают.

Впрочем, судя по всему,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граждан КНДР довольны нынешним курсом. Не факт, что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стало жить веселее, но, безусловно, жить там стало намного лучше. Рыночная модель работает везде, но особенно эффективно она работает, как показал опыт последнего полувека, 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 этом отношении исключением не стала.

### 사할린 일본인들의 일상을 반영하여

지난 12일(금) 사할린주미술박물관에서 <사할린을 바라보며>란 하루키 고토 사진작가의 개인전이 열렸다. 이번 사진전은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일본총영사관 주최로 진행되어 안톤 자이체프 사할린주정부 부수상을 비롯한 공식 인사들이 참관했다. 전시는 러시아에서 <일본의 해>, 일본에서 <러시아의 해>를 기념하는 행사 중 하나다.

히라노 류이치 일본 총영사는 "하루키 고토의 사진전은 변화가 많은 시대를 겪어보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 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사람들의 인생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2세인 하루키 고토는 이미 12년간 사할린을 드나들었다. 좋은 대상과 즐거움을 찾기 위해 그는 고르노사위드스크, 쉐부니노, 레오니도워 등을 비롯해 사할린의 여러 곳을 찾아다녔다.

그가 촬영하는 주제 중 하나는 사할린과 인연을 맺은 일본인들의 인생과 운명이다. 특히 전쟁 이후 사할린에 남은 일본인들과 그들의 후손들, 그중 사할린 한인들을 배우자로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첫 보기엔 단순한 사진인 것 같았는데 사진작가가 일부러 이런 촬영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족사진, 일상의 장면이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보다 와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촬영 스타일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에서 이 전시를 할 때 관객들이 사진 주인공과 가까이 있는 것 같았고 이들에게서 삶의 분위기를 느꼈다."고 작가는 설명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 재외동포재단, 베트남 한-베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도서 6천5백여권 기증

한-베 다문화 자녀들의 정체성 교육을 위한 지원의 일환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사무소에서 청소년출판협의회와 '도서 기증식'을 갖고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해 6천5백여 권의 한글도서를 지원했다.

지난 3월 '한-베 함께 돌봄 센터'에 1,500여 권의 도서를 지원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현재까지 총 8,000여 권의 도서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도서 지원은 청소년 도서 출판사의 공동체인 '청소년출판협의회'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한-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해 6,454권의 책을 기증하면서 이뤄졌다.

청소년출판협의회는 2005년 결성, 73개 회원사로 이루어진 청소년 도서 출판사 공동체이다.

기증식에는 한우성 이사장을 비롯해 청소년출판협의회 신성중 대표 등 청소년출판협의회 관계자 다수가 참석했다.

기증한 도서는 '한-베 함께 돌봄 센터' 어린이 도서관에 비치돼 한-베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에 쓰일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은 "금번 지원된 한글도서를 통해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우리말과 문화를 배우고, 정체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면서, "재외동포재단은 한국, 베트남 양국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베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 [우리말로 깨달다]

### 지나쳐서 보지 못한 것

지나치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는 넘치는 것입니다. 두 의미는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어떤 지점을 넘어갔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넘치다는 의미의 지나침은 우리에게 늘 반성을 줍니다. 지나간다는 의미의 지나치다는 우리에게 아쉬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지나친 욕심은 항상 문제죠. 한자어에서도 과욕(過慾)이라는 말로 조심하게 하였습니다. 사실 욕(慾)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욕에는 좋은 게 더 많습니다. 아니 욕이 없다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식욕이 없다면 어떨까요? 성욕이 없다면 어떨까요? 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고 삶의 원동력입니다. 욕은 꼭 필요한 겁니다.

욕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잠을 못자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수면욕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찌 보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에 빼앗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입맛이 없다고도 하고, 밥맛이 없다고도 합니다. 섭식에 장애가 생긴 겁니다. 억지로 먹으면 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점 말라갑니다. 하고 싶은 일이 없고, 먹고 싶은 게 없고, 잠이 안 옵니다. 적당한 욕심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욕은 우리를 오히려 힘들게 합니다. 지나친 식욕, 지나친 금전욕, 지나친 명예욕, 심지어 지나친 사랑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지나친 욕심을 집착이라고도 합니다. 심지어는 지나친 예의나 공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공비례는 그럴 때 쓰는 말일 겁니다. 지나친 공손도 예의가 아니라는 말이니깐 말입니다. 지나침보다는 약간 남기는, 약간 부족한 듯한, 약간 모자란 듯 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저는 지나치다는 또 다른 의미에 마음이 갔습니다. 치열하게 살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지나친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지나치게 하는 것도, 돈을 지나치게 버는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지나친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지나쳐 버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세월이 내 지나침 때문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친 시간이 소중한 것은 그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나치게 일을 한 것은 가족을 위해서라고 항변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효도를 하려고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추억을 만들고 싶은데 아이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 버렸습니다. 도대체 아이들과 함께 지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여행도 가지 않았고, 함께 본 영화도 없습니다. 아이들 친구 중 이름을 아는 아이가 없네요. 연락이 뜸해진 어릴 적 내 친구는 이미 남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정말 가족을 위한 것이었는지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지나침으로 그렇게 지나쳐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라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나치게 무엇에 몰두함으로써 잃어버리는 것이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 시간을 내어서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기 바랍니다. 지나치지 말아야 할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적십자사경기지사, 사할린동포 망향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김훈동)는 16일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 북한에 고향을 둔 사할린 이주동포들과 함께 망향경모제를 진행했다.

실향의 아픔에 빠져있는 사할린 동포들의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한 동포 중 북한에 고향을 둔 이산가족 360여 명이 참석했다. 사할린 이주 동포들은 망향경모제를 마친 후문화공연 및 레크리에이션 행사에 참여했다.



(경인일보)

### (3면의 계속)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남북 경제협력 교류를 위한 한상의 역할을 모색하고 한상과 국내 기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新)북방정책 ▲신(新)남방정책 ▲비즈니스 세법 ▲아프리카·중동 투자의 4개 세션으로 세분화해 진행된다.

- '신북방정책' 세션에서는 남북 관계 훈풍에 따른 남북한 교류 확대 및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발표에 앞서 협력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김진향 이사장이 '개성공단과 남북경협 고도화'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베이징조선족기업가협회 이춘일 명예회장과 대북사업을 진행 중인 코스트그룹 천용수 회장이 사례발표자로 나선다.

- 아세안, 인도 등 신남방 지역 투자 전망 및 진출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신남방정책' 세션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의 협업으로 더욱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K&K 트레이딩 고상구 회장, CJ그룹 정영수 글로벌 경영고문 등 신남방 지역에 진출해 있는 한상들의 성공사례를 듣는 시간도 마련된다.

- 그 밖에 글로벌 비즈니스 세법

### 올해 한상대회, 한상 네트워크 활용한 비즈니스 특화 프로그램으로 성과 극대화

축적된 한상 네트워크 활용한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 다변화에 초점 인천시 전략 산업 중심의 기업전시회 구성, '한상's 프렌즈' 사업 신설, 국내 뷰티 기업 해외 진출 위한 'K-뷰티 트레이드 쇼' 등 비즈니스 특화 프로그램 마련

을 소개하고 대륙별 투자, 진출 사례를 공유하는 '비즈니스 세법' 세션과 한국과 아프리카·중동 지역의 관계 증진을 통한 투자 전망 및 진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아프리카·중동 투자' 세션도 진행된다.

지역 간·업종 간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상 비즈니스 네트워킹>은 새로운 교류를 위해 지난해와는 다른 지역 경제인끼리 만난다. '북미-오세아니아-러시아·CIS', '중국-유럽-아프리카·중동', '일본-동남아시아-중남미'등 3개 그룹으로 나눠 각 지역별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역과 업종별로 자유롭게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밖에 국내 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K-뷰티 트레이드 쇼'와 '인천시 투자유치설명회'로 진행되는 <한상 비즈니스 플랫폼>도 열린다.

- 국내 뷰티 기업의 글로벌 시장관으로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된 'K-뷰티 트레이드 쇼'는 해외 한상 뷰티단체와 연계를 통해 뷰티 업계의 네트워크 강화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천시 뷰티 공동브랜드 '어울'을 포함한 국내 10개 기업이 참여해 IR 쇼와 비즈니스 상담, 뷰티 체험 행사로 진행된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올해 대회가 국제 물류 도시인 인천에서 개최되는 만큼 한상과 국내 기업들의 비즈니스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상과 한상, 그리고 한상과 국내 경제인 간의 축적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비즈니스 성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 이모저모

(2면의 계속)

42명이 야생진드기 매개 감염 환자로 확정되었는데 그중에 7명이 아동들이다. 사할린에서 진드기 감염 질환 증상은 아동들에게서 더 자주 나타나 12.6%가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야생진드기 매개 감염 발생율은 전년에 비해 26.5% 증가했다. 유치원과 여름휴양지에서 야생진드기 매개 감염은 기록되지 않았다.

야생진드기 매개 감염과 뇌염이 야기되는 지리적 위치는 실제로 사할린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사할린주 방역 및 위생감시센터의 고위험 바이러스 질환 연구소에서 야생진드기 매개 감염 특급진단 검사가 진행되었다. 감염 관찰시기 초부터 들판의 야생진드기 1649마리를 채집해 조사하여 이중 특히 227 마리가 바이러스 감염을, 32마리는 뇌염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러시아소비자권익보호복지감독원 측은 진드기 수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녹지대, 휴양지, 개인 별장 등 415.26헥타르 지역에서 야생진드기 박멸작업을 실시한 가운데 올해 해충 박멸 행사 횟수를 더 늘렸다고 덧붙였다. 2018년 전염병 관찰시기에는 야생진드기 바이러스 백신을 5508명에게 예방접종했고 이중 아동 3174명에게 접종했다. 지난 3년간 지역에서는 야생진드기 매개 감염 예방접종 희망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 От укусов клещей в 2018 году пострадали свыше 2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По итогам девяти месяцев 2018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

2333 обращения с жалобами на укусы клещей. В 562 случаях пострадали дети до 17 лет. Показатели нынешнего года на 21 % выше прошлогодних.

Как сообщи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управлении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в этом году у четырех обратившихся диагностировали клещевой энцефалит, среди пострадав-

ших – один 17-летний подросток. Заболеваемость осталась на уровне 2017 года, ее фиксировали в тре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 Ногликском и Корсаковском, а такж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лещевой боррелиоз выявили у 42 человек. Семь случаев пришлось на детей. Болезнь Лайма на островах стали чаще диагностировать у детей (рост 12,6 %). В целом, заболеваемость боррелиозом увеличилась на 26,5 %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и летних оздорови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случаи клещевых инфекций не регистрировались.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возбудителей энцефалита и боррелиоза отмечено практически на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кспресс-диагностика клещей проводилась в лаборатории особо опасных инфекций Центра гигиены и эпидемиолог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начала эпидемического сезона было исследовано 1649 экземпляров таежных клещей, в 227 особях обнаружены возбудители боррелиоза, в 32 обнаружен возбудитель энцефалита.

В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е добавили, что в этом году увеличилось количество дезинсекцио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 с целью снижения численности клещей проведены акарицидные обработки на 415,26 га лесопарковых зон, мест отдыха людей и дачных участков.

В эпидемический сезон 2018 года проведено 5508 вакцинаций от клещевых инфекций, из них 3174 прививок получили дети.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в регионе увеличивается количество вакцинируемых против клещевого энцефалита.

##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올해 새 이름 갖는다

사할린 주민들은 올해 사할린에서 주요 공항의 새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공항이름 공모 투표는 11월 30일에 마감된다. 사회원이 주최하는 <러시아 위대한 명칭> 공모전에 대한 상세정보는 великиеимена.рф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이름 선정 공모전은 4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러시아 연방 지역마다 사회원이 여는 공청회의 결과에 따라 각 지역에서 지역공항들의 이름을 응모한 이름목록을 작성한다. 10월 21일까지 논의를 거쳐

10월 28일까지 이름목록이 작성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 희망자는 공모전 사이트에서 추가 응모를 할 수 있다. 500명 이상이 제안한 이름들이 투표명단에 오른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11월 7일까지 최종 선정된 이름목록을 작성할 예정이다. 사회적 설문조사 과정상 공모전의 대상이 되는 각 공항마다 3개의 명칭을 선정해 최종투표에 부친다.

최종적으로 11월 8-30일까지 투표 희망자는 총 이름목록에서 공항 하나에 이름 하나를 선정할 수 있다. 몇 가지 방법으로 선정에 참가할 수 있는데 공모전 사이트, SNS, 문자나 철도역과 공항에서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Аэропор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лучит новое имя уже в этом году

Сахалинцы узнают новое имя главного островного аэропорта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Голосование завершится 30 ноября. Подробности конкурса «Великие имена России», организованн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ой, размещены на сайте великиеимена.рф.

Весь конкурс разделен на четыре этапа. Сначала общественные палаты регионов РФ проведут публичные слушания,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которых в каждом регионе сформируют списки имен - претендентов на названия местных аэропортов. Обсуждения продлятся до 21 октября. Затем до 28 октября будут сформированы лонг-листы имен. На этом этапе каждый сможет добавить свой вариант на сайте проекта. Имена, которые предложат не менее 500 человек, попадут в список для голосования. Третий этап - формирование шорт-листов - будет идти до 7 ноября. В ходе социологических опросов будут определены по три имени для каждого аэропорта - участника акции, которые и будут выставлены на финальное голосование.

В заключение с 8 по 30 ноября любой желающий сможет выбрать один аэропорт из общего списка и проголосовать за одно имя. Это можно будет сделать несколькими способами: на сайте проекта, в соцсетях, отправкой смс-сообщения или заполнив анкету на железнодорожных вокзалах и в аэропортах.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реклама

bilet.sakh.com

#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